



## GP Indonesia 김 화 수 선 교 사

☞. Sariwangi Asri X, No. 8, Kompleks Sariwangi Asri, Kel.Sariwangi,  
Kec.Parongpong Bandung Barat, Indonesia

//Tel: +62-22-8202-5858//hp)62-812-2194676//E-Mail: [estherhsk@gmail.com](mailto:estherhsk@gmail.com)



### 살림 ~

이른 아침에 그리도 화사하고 청명하던 하늘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숨어버린 후 아침부터 추적추적 흩뿌리는 비를 보며 우울해지려던 찰나 째하고 다시 밝은 햇님이 강렬한 빛을 비추며 회색 빛 구름을 가르고 얼굴을 내밀며 다가와 기쁨과 위로를 주네요... 스치며 지나는 부드러운 바람은 덤으로 찾아와 작은 행복을 선사하는 평온한 일상의 아침입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 욕망과 미움과 증오들, 그리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 삶과 죽음이 오가는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각 같은 지구촌 안에서 호흡하며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갖게 되는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아주 잠시 내려 놓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립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구원하소서...주님 뜻 이루소서...

### 은혜의 집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교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회교도들도 한달간의 라마단 금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이돌피투리'라는 그들의 최대 명절 기간을 보내는 절기가 지나갔습니다. 라마단 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도인인 우리 아이들이 올해는 유난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금식 시작전 일주일, 그리고 한달간의 금식기간동안 학교에서도 회교도들만의 종교의식을 진행하느라 종종 일시적인 방학이 주어져 약 2주 정도 집에서 공부하며 지내야 했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의 맥은 자주 끊겼지만 집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도 있었고 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도 있었지요.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북적거리며 재잘거리는 모습이 언제부턴가 전혀 낯설지 않고 사람 사는 냄새와 향기로 다가옵니다. ^^... 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모든 날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 가게 하시니 정말 값을 길 없는 주의 크신 은혜요 형언 할 수 없는 주의 사랑입니다.

## 즐거운 소풍 ~

오랜만에 은혜의 집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2월 중순, 회교도들의 라마단 금식전과 금식기간에 기독교도인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2 주 정도의 방학 기간에는 회교도들이 많이 놀러 다니지 않아 평소보다 붐비지 않고 혼잡하지 않기에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서만 버르고 있던 소풍을 가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1 시간 거리에 있는 화산과 동물원에 다녀 왔습니다. 갓 태어나자마자 은혜의 집 식구가 된 아기가 자라서 2 살배기가 되어 아장아장 걸기도 하고, 한살을 갓 넘긴 아이도 있는데 그 예쁜 꼬맹이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이런 세상도 있단다” 하고 색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작년에 새롭게 은혜의 집 식구가 된 몇 명의 중학생들 역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늘 시장통처럼 북적대는 은혜의 집이라는 작은 공간을 떠나 대자연의 신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품에 꼭 잠길 생각에 아이들 못지않게 왠지 제가 더 들뜨고 신나는 마음이 되어 대학생 형들이 운전하는 차에 몸을 싣고 뿔뿔 뺩뺩!! 한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고 꽤 비싼 동물원 입장료도 동물원 주인을 아는 어느 분의 도움으로 무료입장 !! 호랑이, 코끼리, 토끼, 온갖 종류의 새와 동물들을 마주하며 신기해 하는 꼬맹이들과 아이들...날씨도 화창하고 때로는 덥지 않게 구름을 보내 기온을 조절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준비해간 도시락은 즐거운 일정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공터에 둘러 앉아 똑딱 금새 해치웠고 화산을 구경하고 내려올 때는 그 주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현지인 친구분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정말 무난하고 즐겁게 주의 돌보심가운데 은혜의 집 아이들 소풍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주님!! 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세밀하고 자상하게 돌보시며... 왜 날 이토록 사랑하시나요..., 감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 은혜의 집에 합류한 리베 ~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리베가 결혼을 하고 1 년도 채 되지 않아 제가 하는 사역을 부분적으로나마 돕기 위해 다시 은혜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충성된 아이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인정을 받으며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은혜의 집 사역에 합류하기 위해 사직하겠다고 말했을 때 사장님과 윗 상사가 허락지 않고 일주일만이라도 나와 달라 부탁하셨습니다. 마음 약한 리베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 하며 제게 상의를 하길래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시도해 보자며 허락을 하였고 돕는 자가 생긴 덕분에 늘 분주함가운데 있던 저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역의 업무 속에서 이따금씩 숨을 돌릴 여유를 가지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잘 훈련되어져 앞으로 은혜의 집을 운영해 나가는데 중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마헤르도 저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아침 6 시면 캠퍼스에 가기 전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모두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본인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은혜의 집 및 선교관 수리도 리베와 함께 대부분 스스로 해냅니다. 참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주님안에서 믿음도 강건하게 자라고 토목공학과를 졸업후 취직길도 순조롭게 열려 주안에서 그가 품은 꿈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으며 주님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집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중에 제마음을 가시로 찌르듯 아프게 하는 아이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마 젖 한번 빨아 보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로 보내진 베이비들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대학생 언니들이 기저기를 갈아대며 우유를 타 먹이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아이를 재우고 돌보는 은혜의 집 가족들이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가 되고, 유치원생이 되었으며 재롱쟁이 꼬맹이들이 되었네요... 우리 은혜의 집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잘 세워져 나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걸어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유치원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 둘 보내주시는 아이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꼬맹이와 4~5 세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고 만지며 배우고 경험하는 기쁨이 있고,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하는 마음및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노는 것이 즐거운지 아침 6 시전에 준비하여 학교에 가는 데도 잘 따라 갑니다. 더 많은 아이들과 충성되고 실력있는 교사도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1 월 중순에는 저를 파송한 부천삼락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담당 교역자, 교사등 23 명이 단기 선교를 다녀 갔습니다. 오랜만에 선교지를 방문 한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저런 사역을 하는 동안 큰 격려와 힘을 얻었고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섬기는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큰 울림과 감동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일하셔서 수고와 눈물로 뿌린 하나 하나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협력하는 교단 GGP 산하 오지 섬에 있는 2 개 교회를 도와 다시 예배 처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 매번 이곳 저곳으로 세를 얻어 옮겨 다니는 젊은 목회자가 사역하는 북부 수마트라의 니아스 섬인데 건축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술라웨시에 있는 회교도의 방해와 텃세가 강력한 지역이라 녹록치 않은 상황가운데 건축을 시작했는데 속도가 아주 느리게 가고 있고 이제야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한 부분을 돕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교회와 성도들 스스로 감당하도록 했기에 기도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연약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4 월 5 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십자가 에서 쏟아 부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부활 주일을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과 삶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부족하나마 주님 닮기 원하며 부르심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낮설기만 했던 2026 년도가 어느 덧 익숙하고 친근하다 싶어 정신 차려보니 벌써 4 월이네요. 세월은 미련도 없이 빠르게 흘러 지나가고 그만큼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날도 더 가까워 지는 듯 합니다. 여전히 분주한 삶이지만 깨어 있어 지혜있는 종이 되고 주님 오심을 바라고 사모하며 우리 모두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분을 맞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여전히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저의 길을 지켜주신 귀한 동역자님들께 저의 한없는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았고 더욱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승리의 삶 누리소서 ~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열방과 세계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  
아 멘 !!!

2026 년 4 월 4 일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화수 드림.

기도제목 :

1. 김화수 선교사 개인의 삶과 사역의 현장속에서 매일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충성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2. 은혜의 집 아이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며, 모든 면에 진보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만나며 그의 사랑을 경험토록, 그리스도를 위한 일군으로 세워지도록.
3. 은혜 유치원에 주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풍성히 임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원생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4. 건축중인 GGP 교단 산하 2 개의 교회들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성도들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건축에 참여하며, 건축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도록.
5. 제가 4 월중에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 체크 및 담낭에 있는 혹을 제거할 수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 개입해 주시고 온전한 건강 주시도록.